

쌀 20만t 정부가 추가 매입

시장과 격리 ... 쌀값하락 막기 안간힘

정부가 2009년산(產) 쌀 20만t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키로 하는가 하면, 쌀을 풍이나 사료작물 재배지로 전환, 쌀 생산량 감소를 추진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 중 20만t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쌀의 '시장 격리'란 정부가 나서 일정 물량을 사들인 뒤 정부 창고에 가둔 뒤 시장에 풀지 않는 조치로, 쌀값이 주락, 쌀농사를 앞둔 농민들의 불

안감이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전국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평균 쌀 출하가격은 지난달 13만 9091원(80kg 한 가문)으로, 최근 5년래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2006년 4월의 가격(13만7512원)에 근접한 정도로 폭락했다.

이번 시장 격리 방침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정부의 시장 격리 물량은 90만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5월 적정한 시장 가격을 반영, 10만t 먼저 매입한 뒤 쌀값 변동 주이를 지켜보면서 나머지 10만t

을 추가로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농민이나 지역농협, 민간 미국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한 벼가 매입 대상이며 농협중앙회가 사들여 관리되며 관비용, 매입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액 등 손실을 정부가 주후 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3만ha를 타작으로 전환할 정도로 폭락했다. 이번 시장 격리 방침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정부의 시장 격리 물량은 90만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논의의 작목 전환은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3만ha를 타작으로 전환, 쌀 생

산량을 15만t 감축시키자는 것으로, 쌀 재고량(128만t)이 적정 비축규모(72만t)보다 많고 쌀 소비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다, 쌀값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따라 우선 공급을 줄여 안정을 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2008년 484만3000t→2009년 491만 6000t로 7만t 증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쌀을 사들였는데도 올해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농민들의 쌀값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시장 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많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높이 272m 이순신대교 주탑

25일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노랑해전의 바다, 광양만에 세계 최고 높이의 콘크리트 현수교 주탑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순신 대교 주탑은 해발 272m로, 콘크리트로 된 세계 현수교 주탑 중에서 가장 높다. 이순신 대교는 광양시 금호동~묘도~여수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 연장 2260m.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해(1545년)에 맞춰 주탑과 주탑 사이 간격을 1545m로 설계했다. 여수엑스포 개최 전인 2012년 4월 말 개통 예정으로, 965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 제공>

전남 농축산물 뱃삯 올라 농·어가 부담

5개지역 운송비용 32억 ... 생산량은 제자리 대책 절실히

설 지역 농축산물의 해상 운송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운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는 25일 여수·고흥·완도·진도·신안 등 5개 지역 26개 읍·면·의 농·축산물 생산량과 해상 운송비용을 조사한 결과, 생산량은 20만1485t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운송비용은 32억

8900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 2%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만5620원인 1㏊당 선박 운송비용이 지난해 1만5930원으로 310원 올랐기 때문으로, 그만한 지역 농어민들의 운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설 지역의 경우 각종 생필품 및 농자재 구입 비용이 육지에 비해 1.5배 높은 만큼 해상 운송비 등의 육상 물류비까지 상승하게 되면 농산물 판매

로 인한 채산성을 확보하는 게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삼지역 농축산물 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에 33억원의 농·축산물의 해상 운송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정주여건 조성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논에 콩·사료작물 재배

1㏊당 300만원씩 지원

전남도는 25일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내 논을 풍이나 사료작물을 재배지로 전환할 경우 1㏊당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내 논 6084ha를 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전환한 농가가 대상이며, 지난해 쌀소득 변동직불금 대상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과수·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나 휴경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10월 영암 F1 '볼거리 풍성'

결승전 시상대 개방·'F1워크' 등 이벤트 다양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결승

전 시상대가 관람객에게 개방되고 대회기간 1주일이 'F1워크'로 지정되는 등 대회 개최 붐을 피우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마련된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25일 F1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집중 토론회

의 경우 관람객을 위한 F1대회 체험문화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호주 대회의 운영 방식을 활용해 관람객에게 우승자 시상대인 '포디움'을 개방키로 했다. 이렇게되면 관람객들이 우승한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게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올해 대회를 마친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그랑프리의 홍보·문화행사·교통수송·숙박관리·대회지원 분야 등을 분석하고 대회개최 전 준비상황과 대회진행상황 등을 검토해 코리아 F1대회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동 교육·보육비 5년새 24% '껑충'

월평균 33만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 및 보육 비용이 5년 전보다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어린이집 운영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지난해 3~6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347가구와 유아를 양육하는 2554가구, 어린이집 3201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가구의 교육 및 보육 비용은 월평균 3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소득 대비 12.9%로 지난 2004년 조사 당시의 26만7000원보다 24.3% 늘었으며 소득대비 비중도 2.1% 포인트 커진 것이다. 미취학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는 보육·교육비가 월 33만5000원이었고 가구소득 대비 14.1%나 됐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어린이의 40%

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68점으로 지난 2004년 조사 당시의 3.58점보다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월평균 16만8000원

으로 5년전 16만4000원과 유사한 수

준이었으나 5년 전보다 보육료는 2만

2000원 감소한 대신 혼학학습비, 특

기활동비 등 추가비용이 2만6000원

늘어났다.

민간 어린이집의 84.6%, 가정 어린이집의 83.3%가 종사자 인건비나 보육환경 개선비도 대지 못할 정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원아 모집이나 종사자 채용도 예전보다 힘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중국 상하이 방문

30일부터 이틀간 ... 엑스포 개막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순국선열의 아국애족 정신을 기린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일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주최하는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고 역대 엑스포 전시관 중 최대규모인 한국관(연면적 7천 683m²)에 개관식에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또 127회 우리 기업이 공동전시한 한국기업연합관과 개최국 전시관인 중국관에도 들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상하이에 도착한 뒤 이날 오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지역정세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해 순국선열의 아국애족 정신을 기린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일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주최하는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고 역대 엑스포 전시관 중 최대규모인 한국관(연면적 7천 683m²)에 개관식에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또 127회 우리 기업이 공동전시한 한국기업연합관과 개최국 전시관인 중국관에도 들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상하이에 도착한 뒤 이날 오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지역정세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월평균 33만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 및 보육 비용이 5년 전보다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어린이집 운영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지난해 3~6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347가구와 영유아를 양육하는 2554가구, 어린이집 3201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가구의 교육 및 보육 비용은 월평균 3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소득 대비 12.9%로 지난 2004년 조사 당시의 26만7000원보다 24.3% 늘었으며 소득대비 비중도 2.1% 포인트 커진 것이다. 미취학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는 보육·교육비가 월 33만5000원이었고 가구소득 대비 14.1%나 됐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어린이의 40%

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68점으로 지난 2004년 조사 당시의 3.58점보다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월평균 16만8000원

으로 5년전 16만4000원과 유사한 수

준이었으나 5년 전보다 보육료는 2만

2000원 감소한 대신 혼학학습비, 특

기활동비 등 추가비용이 2만6000원

늘어났다.

민간 어린이집의 84.6%, 가정 어린이집의 83.3%가 종사자 인건비나 보육환경 개선비도 대지 못할 정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원아 모집이나 종사자 채용도 예전보다 힘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문화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문화예술을 디자인하는 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은 문화예술을 디자인하는 학교입니다.

문화전문대학원은 문화예술을 디자인하는 학교입니다.